

## 조선후기 읍지 편찬 흐름과 읍지 통합 작업

- 경산지역 경산·자인·하양 세 고을을 중심으로 -\*

이 재 두\*\*

- I. 머리말
- II. 18세기 후반 영·정조대의 읍지
- III. 19세기 중엽 순조·헌종·철종대의 읍지
- IV. 19세기 말엽 고종대의 읍지
- V.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후기 읍지는 구지를 그대로 베낀 경우들이 많아 읍지 제작 당시 고을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18세기 후반 영·정조 시기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읍지 편찬에는 향촌 공의를 바탕으로 사족들이 참여하였다. 19세기 순조 말 읍지 편찬에도 사족들이 일부 참여하여 경상도 도내 전체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읍지를 편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완성한 정본은 규장각의 『경상도읍지』만 확인된다. 그렇지만 각 고을에는 18세기 후반이나 순조대에 편찬한 읍지의 고을

\* 이 논문은 디지털경산문화대전에 실린 필자의 원고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수정·보완하면서 지역사 연구를 위한 읍지 통합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임.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 2sigory@daum.net

보관용이나 초고본이 남아있었다. 각 고을에서는 이전에 편찬한 구지나 1832년지의 초고본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말단에 있던 향리들은 구지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가감하여 감영이나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편찬 시기가 후대 것이지만, 읍지 편찬 이전 시기의 통계자료가 실린 것은 구지를 재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경산현·자인현·하양현의 경산지역은 영조대의 전국읍지 편찬 사업 추진 과정에서 1758년에는 『여지승람』 증보유형, 1760년에는 『여지도서』 유형의 읍지를 편찬하였다. 제3, 4차 전국읍지 편찬 사업 시기인 1768년과 1773~1775년 무렵에도 읍지를 편찬했겠지만, 현전하지 않는다. 정조대인 1786년에 편찬한 읍지를 보면, 경산현과 하양현은 1786년에 보급한 『여지도서』 보완유형(『경상도읍지』 유형)이며, 자인현은 1775년에 보급한 『여지도서』 증보유형(『여지도서』+α 유형)이다. 1789년에 편찬한 읍지는 세 고을 모두 1786년지를 바탕으로 호구와 부세 관련 수치를 수정하였을 뿐이다. 순조 말인 1832년 전국읍지 편찬 사업 당시 경상도는 감영이 중심이 되어 모든 고을에서 『여지도서』 보완유형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후 편찬한 19세기 경산지역 읍지는 일부 수록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 유형이다.

관찬읍지는 대부분 필사본이며, 보고용으로 제작한 것을 제외하면 고을에 남은 부분은 많지 않았다. 경산지역에는 1758년 이래 고을마다 시기별로 10종 정도의 읍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구지를 베끼면서 내용을 가감하여,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록 내용이 풍부한 선본을 고르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을마다 현전하는 읍지 전체를 대상으로 수록 내용을 모두 전산화하여 항목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통합 읍지’를 편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읍지 통합 작업’은 조선후기 지역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 주제어

읍지, 경산지역, 읍지 통합 작업, 지역문화 콘텐츠.

## I. 머리말

오늘날 경산시 지역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경산군·자인군·하양군 전체와 신녕군 남면을 통합한 경산군으로부터 유래한다.<sup>1)</sup> 1637년(인조 15)에 자인현이 경주부로부터 분리되면서,<sup>2)</sup> 조선후기 경산현에는 현령, 자인현과 하양현에는 현감이 파견되었다. 1895년(고종 32) 5월 지방행정구역을 군으로 일치시키면서 이 세 고을은 경산군·자인군·하양군이 되어 군수가 부임하였다.<sup>3)</sup> 1906년 9월 지방구역을 정리하였지만, 경산 지역은 변화가 없었다.<sup>4)</sup> 1914년 군면 통폐합 때에는 월경지(越境地)인 신녕군 남면이 하양군 와촌면에 통합되어 경산군 와촌면에 속하게 되었다.<sup>5)</sup> 1981년 7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될 때, 안심읍과 고산면이 대구에 편입되면서 관할 범위는 축소되었다.<sup>6)</sup>

17세기 말부터 조선에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전국읍지 편찬을 추진하였다.<sup>7)</sup> 숙종대의 목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 『여지승람』)을 증보개

1)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1917, 474~480쪽; 1904년 8월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이 되면서 화폐정리사업과 함께 습郡 논의가 거듭되었다. 1905년 8월에는 전국을 8도 162개군으로 개편하려던 지방합병안이 공개되었다. 합병안에 의하면, 경산군·자인군·하양군을 1개군으로 합병하려 하였으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양진아, 「통감부의 지방합병 계획과 한성자치론의 대두」, 『한국사연구회 제342차 월례발표회 자료집』, 2022.06.11, 2~3쪽.

2) 이광우, 이수환, 「16~17세기 慶尙道 慈仁縣 復縣 과정과 이를 둘러싼 慈仁 慶州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고문서연구』 41, 2012, 42쪽.

3) 『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5월 26일 병신, “勅令第九十七號 監營·按撫營站留守廢止件 裁可頒布. 勅令第九十八號 地方制度改正件 裁可頒布. … 附則. 第五條 本令은 開國五百四年閏五月一日로부터 施行호. 第六條 本令施行호는 日에 時任호 府尹·牧使·府使·郡守·庶尹·判官·縣令·縣監의 官職에 在호는 者는 別로 辭命을 用호지 아니호야도 本令에 依호야 各其郡의 郡守가 되음”

4) 대한제국 칙령 제49호 지방구역정리건(1906년 9월 24일, 『관보』 부록 광무 10년 9월 28일 6쪽).

5) 越智唯七, 앞의 책, 475쪽.

6) 이재두, 「지리지를 통해 본 대구지역의 행정구역 변천」, 『영남학』 76, 2021a, 365~367쪽 참고.

7) 자세한 내용은 이재두, 「숙종대의 『여지승람』 수정증보 사업과 그 의미」, 『동방학지』

간하는 것이었다. 1679년(숙종 5), 1699년(숙종 25), 1706년(숙종 32) 세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증보여지승람(增補輿地勝覽)’은 편찬인력과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1680년 경 박신규는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여지승람』 경상도편을 속성(續成)하였지만, 경산지역의 읍지에서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18세기 중엽 영조 후반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부세수취·군액확보만이 아니라, 호구와 지방행정 등 변화하는 전국 각 고을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읍지 편찬을 추진하였다.<sup>8)</sup> 1757년(영조 33)에는 단순히 읍지수집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수록규정을 하달하지 않았지만, 읍지의 첫 장에는 지도를 싣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1758년(영조 34) 12월 23일 홍문관에는 각 고을에서 수집한 『팔도읍지』 신건을 비치하고 있었다. 숙종대 읍지 편찬의 경험과 사찬읍지를 바탕으로 『여지승람』의 고례를 따르거나, 『여지승람』에 행정·재정·인물을 보강하거나, 사찬읍지의 형식을 빌리기도 하였다. 『경상도경산현읍지』는 『여지승람』의 고례에 따라 1758년경에 편찬한 읍지이다.

경산지역은 『경상도경산현읍지』(1758) 이외에도 19세기 말까지 경상도 도지(道誌)의 편찬 과정에서 제작한 많은 읍지가 남아있다.<sup>9)</sup> 18세기 후반 영·정조대의 도지로는 1760년지, 1786년지, 1789년지가 있고, 19세기 중엽 순조·헌종대에는 1832년지와 1841년지, 19세기 말엽 고종대에는 1871년지, 1878년지, 1895년지, 1899년지가 전한다. 도지 9종에는 경산지역 세 고을의 읍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1760년지, 1832년지, 1871년지, 1895년지는 영인되었지만, 나머지 도지는 그 존재를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1760년에는 세 고을 모두 『

186, 2019b, 149~184쪽을 참고할 것.

8) 자세한 내용은 이재두, 「영조대의 제1, 2차 읍지 편찬 사업」, 『장서각』 41, 2019c, 204~236쪽과 이재두, 「영조대의 제3, 4차 읍지 편찬 사업과 그 의미」, 『대구경북연구』 18-2, 2019d, 111~132쪽을 참고할 것.

9) 이재두, 「경상도 도지의 분포와 유형 및 정보 제공 현황」, 『복원사림』 39, 2021c, 50~57쪽.

여지도서(輿地圖書)』 유형의 읍지를 편찬하였다. 정조대에 두 차례 편찬한 읍지는 경산현과 하양현이 『여지도서』 보완유형(『경상도읍지』 유형)이며, 자인현은 『여지도서』 증보유형(『여지도서』+α 유형)이다.<sup>10)</sup> 1832년 이후에는 세 고을 모두 『여지도서』 보완유형의 읍지를 편찬하였다. 경상도 지역은 『여지도서』 편찬 이래, 대체로 지도를 2면으로 제작하였는데, 경산현은 1면으로 제작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1760년 『여지도서』 편찬 당시 처음에는 지도를 1면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제작한 1면의 지도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표 1>은 조선후기 경산지역 읍지를 시기별로 나눠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조선후기 경산지역 읍지 일람

연 번	서명	편찬 시기	소장처	경산현					자인현					하양현				
				지도 (면)	본문 (면)	식년 (식)	서기 (년)	호수 (호)	지도 (면)	본문 (면)	식년 (식)	서기 (년)	호수 (호)	지도 (면)	본문 (면)	식년 (식)	서기 (년)	호수 (호)
1	경상도경 산현읍지	1758	규장각	×	9			×										
2	여지도서	1760	교회사	2	14	기묘	1759	3,143	2	16	기묘	1759	2,970	2	11	기묘	1759	1,655
			계명대	2	14	기묘	1759	3,143						2	11	기묘	1759	1,655
3	‘경상도 읍지’	1786	덴리대	×	24	병자	1756	3,256	×	25	병오	1786	3,210	×	15	병오	1786	1,687
	하양현지		금호서원											2	20	병오	1786	1,687
4	영남읍지	1789	일본국회	1	19	기유	1789	3,431	2	21	기유	1789	3,220	2	17	기유	1789	1,690
5	경상도 읍지	1832	규장각	2	26	신묘	1831	3,025	2	51	신묘	1831	3,246	2	19			1,726
	대구진관 하양현지		규장각											2	19			1,726
6	영남여지	1841	존경각	1	28	경자	1840	2,884	2	44	경자	1840	3,249					

10) 『경상도읍지』 유형이라는 표현은 1832년 특정 지역의 읍지 형식을 소급하여 적용한 문제가 있다. 『여지도서』 유형 수록항목을 보완하여 1768년에 전국에 걸쳐 보급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여지도서』 보완유형으로 수정하였다. 아울러 『여지승람』+α 유형은 『여지승람』 증보유형, 『여지도서』+α 유형은 『여지도서』 증보유형으로 변경하였다. 이재두, 『조선후기 관찬읍지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1b, 28~29쪽 주 115).

	하양현읍지		경산시립													2	22			1,732
7	하양현지	1856	규장각													2	26			1,726
8	영남읍지	1871	규장각	1	29	경오	1870	3,165	2	54	무자	1768	3,081	2	16					1,750
9	(경상도) 읍지	1878	고궁벽물	1	43	병자	1876	3,162	2	50	병자	1876	3,254	2	49					1,750
10	자인읍지	1891	장서각						2	32	무오	1858	3,256							
11	영남읍지	1895	규장각	×	21			×	2	51	신묘	1891	2,920	2	22	병오	1786			1,687
12	‘경상북도 각군읍지’	1899	규장각	1	4			1,975	2	30	신묘	1891	2,920	2	18					1,366
			계명대	1	4			1,975						2	18					1,366

\*소장처의 규장각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회사는 한국교회사연구소, 계명대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 덴리대는 일본 덴리대학 덴리도서관 이마니시문고, 일본국회는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존경각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경산시립은 경산시립박물관, 장서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다.

<표 1> 호수의 기준 식년을 보면 경산현의 1786년지는 병자식(丙子式, 1756), 자인현의 1871년지는 무자식(戊子式, 1768), 1891년지는 무오식(戊午式, 1798, 1858)으로 읍지 편찬 당시의 호수와 거리가 멀다. 호수의 증감 추이와 전국읍지 편찬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경산현의 1786년지는 1758년지를 편찬할 무렵의 호수, 자인현의 1871년지는 1768년지를 편찬할 무렵의 호수로 여겨진다. 다만, 자인현의 1891년지 무오식은 1858년이나 1798년으로 추정할 뿐,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영남읍지』 「자인현지」(1871)는 1768년에 편찬한 구지(舊誌)를 포함하고 있는데, 1768년은 전국에 걸쳐 『여지도서』 보완유형이 보급된 시기이며, 이때 보급된 읍지 수록형식은 1832년 경상도 각 고을 읍지의 표준양식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경산지역 세 고을에서 편찬한 현전읍지를 대상으로, 18세기 후반 영·정조대, 19세기 중엽 순조·헌종·철종대, 19세기 말엽 고종대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고을별 읍지의 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조선후기 관찬읍지의 편찬 흐름을 정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선후기 연구에서 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을마다 현전읍지에 실린 모든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읍지 통합 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18세기 후반 영·정조대의 읍지

### 1. 『경상도경산현읍지』(1758)

『경상도경산현읍지』(想白古 915.15-G997)는 원본을 베낀 후사본(後寫本)이며, 국내외에 현전하는 경산지역 읍지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원래 진단학회 소장본이었으며, 인찰공책지(印札空冊紙)를 사용하지 않았고 지도가 없으며, 면당 10행(行)×20자(字), 총 9면(面)이다. 원본은 1757년 8월부터 시작한 영조대의 제1차 전국읍지 편찬 사업(1757~58) 당시 편찬한 읍지였으며, 대구를 大丘라 하지 않고 大邱로 쓴 것은 후대에 원본을 베끼는 과정에서 수정하였기 때문이다.<sup>11)</sup> 명환의 마지막에는 서민수(徐敏修)가 기사년(1749, 영조 25)에 현령으로 부임한 사실까지 적혀 있다. 역대 지방관의 명단인 환적이 아니라 지방관 가운데 선별된 명환이고, 서민수의 후임인 김종정이 1756년 3월에 부임하여 1758년 1월에 교체된 점을 고려하면, 후임자들인 김종정이나 이이병이 현령이었던 1757년 말이나 1758년에 편찬하였을 것이다.<sup>12)</sup>

수록항목은 ‘강역’, 건치연혁(진관, 관원 포함), 군명, 방곡, 성씨, 풍속, 산천, 토산, 성곽, 봉수, 궁실, 누정, 학교, 역원, 제언, 불우, 사묘, 고적, 명환, 인물, 제영 순이다. 읍지 편찬 당시 고을의 현황을 중시하여 폐지하였거나 없어진 것은 생략하였으며, 추가한 내용에도 신증 표시를 하지 않았다. 성씨에는 『여지승람』과 달리 당시 경산현에 거주하고 있던 32개 성씨와 관향을 실었다. 『여지승람』 편찬 이후 추가한 항목은 방곡·궁실·제언이다.

건치연혁에는 1601년(만력 신축) 임진왜란 이후 고을이 쇠잔하여 대구부에 병합하고 영(營)을 설치하였다가, 1607년(정미)에 복설(復設)한

11) 이재두, 앞의 논문, 2019c, 213쪽.

12) 『승정원일기』 영조 32년 3월 8일 병자 “慶山縣令金鍾正”, 영조 33년(1757) 12월 28일 병술 “李彝炳(李頤柄)爲慶山縣監”

사실을 기록하였다. 방곡(坊曲)에는 읍내면 성내 4부, 성외 11방, 동면 11방, 남면 11방, 서면 12방, 북면 7방 등 모두 5개 면에 속한 방의 수를 적었다. 일반적으로 방(坊)은 함경도의 사(社)와 함께 면(面)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시 경산현의 방은 방·면·사의 하위 단위인 동리(洞里)에 해당한다.

궁실(宮室)에 객관(客館)과 무학당(武學堂)의 위치를 적고, 누정에는 진옥루(鎭玉樓) 한 곳만 적었다.<sup>13)</sup> 학교에는 향교 외에 고산서원(孤山書院)의 내력을 실었다. 제언(堤堰)에는 26개 제언의 이름과 위치를 적었다. 사묘(社廟)의 영동사(永東祠)에는 고려 때 전영동(全永東)이라는 이인(異人)이 있어 고을 사람들이 제사하였고 그것이 도내에 퍼졌다는 사실을 자세히 적었다. 명환에는 『여지승람』에 실렸던 신라 김유신(金庾信), 김인문(金仁問), 본조(조선) 손옥(孫旭), 신증 안만철(安萬哲) 중에서 안만철을 제외하였고, 이희년(李禧年), 이원구(李元龜), 유명담(兪命聃), 이발(李浹), 심수준(沈壽俊), 이정량(李廷亮), 류유(柳愈), 서민수(徐敏修)를 신증(新增) 표시 없이 추가하였다. 『여지도서』 명환에는 김유신·김인문·손옥·안만철에 이어 이원구만 신증하였다. 제영에는 서거정, 이언적, 김안국의 시가 실려 있다. 전체적으로 『여지도서』 「대구진관 경산현」보다 인물과 시문 관련 내용이 많다.

## 2. 『여지도서』(1760)

영조대의 제2차 전국읍지 편찬 사업(1759~60)에서는 홍문관에서 홍문관 법례 35개 항목을 내려보내 각도 감영이 중심이 되어 각 고을 읍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sup>14)</sup> 목차는 ‘지도’, ‘강역’, 방리(호구 포함), 도

13) 『신증동국여지승람』 누정에는 望北樓와 此君軒이 보인다. 차군현에는 蔡申保(1420~1489)의 기문이 실려 있었지만, 『경상도경산현읍지』 이래 19세기 말까지 ‘차군현기’를 수록한 읍지는 『여지도서』(1760)가 유일하다.

14) 자세한 내용은 이재두, 「『현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영남학』 60, 2017, 241~272쪽과 이재두, 「『여지도서』의 편찬시기와 항목구성 및 신설항목



로, 건치연혁, 군명, 형승, 성지, 관직, 산천, 성씨, 풍속, 능침, 단묘, 공해(公廨), 제언, 창고, 물산, 교량, 역원, 목장, 관애, 봉수, 누정, 사찰, 고적, 진보, 인물, 한전, 수전, 진공, 조적, 전세, 대동, 군세, 봉류, 군병 순이었다. 권두의 방리와 도로, 권말의 한전부터 군병까지는 『여지승람』에는 없던 신설항목이며, 지방행정을 정비하고 조세 부과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두어 자 정도 띄었다.

경상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명환·제영, 궁실·총묘를 추가하여 40개 항목까지 수록할 수 있었다. 고을에 해당 없는 항목은 생략하였기 때문에 40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고을은 없다. 고례(古例)를 존중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모든 항목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분량이 많고, 시문이 풍부하다. 방리는 고을 전체 인구나 방·면의 이름 정도만 밝혔고, 면리별 인구나 동리 지명은 대부분 생략하여 다른 도 지역에 비하여 소략하다. 당시 경상도 각 고을에서는 중앙에 올려보낼 3권(어람·홍문관·성균관)과 감영에 비치할 2권을 만들어 경상감영으로 보냈다.

1760년(영조 36) 읍지 편찬 당시 경산지역 지방관은 경산현령 이이병, 하양현감 김경철, 자인현감 김방이었다.<sup>15)</sup> 당시 편찬한 세 고을의 읍지는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으며,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에 『여지도서』 편찬 당시의 복본인 『여지도서: 경산하양읍지』를 소장하고 있다. 지도 2면과 함께 홍문관과 감영에서 하달한 목차대로 작성한 뒤 인찰공책지에 면당 10행×20자로 정서한 읍지이다.

『여지도서』 방리를 보면 1759년(己卯式) 기준으로 경산현은 읍내면, 동면, 남면, 서면, 북면에 3,143호, 14,804명, 자인현은 읍내면, 상동면, 하동면, 상남면, 하남면, 서면, 상북면, 하북면에 2,970호, 11,333명, 하양현은 읍내면, 와촌면, 마양면, 안심면, 낙산면, 중림면, 북면에 1,655호, 6,959명이다. 제언은 경산현 38개, 자인현 105개, 하양현 6개이다.

『여지도서』 「대구진관경산현(大丘鎭管慶山縣)」은 본문이 14면(面)이며,

의 유래, 『민족문화연구』 82, 2019a, 265~300쪽을 참고할 것.

15) 『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4월 12일 정묘 “金景澈爲河陽縣監”, 영조 35년(1759) 5월 28일 정미 “金墮爲慈仁縣監”

경상도편 40개 개설항목 가운데, 형승, 능침, 궁실, 충묘, 교량, 관애, 진보 7개 항목을 생략하였다. 학교에 실린 향교가 『여지승람』에는 현의 서쪽 3리이었지만, 『여지도서』에는 현의 남쪽 1리인 것을 보면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단묘에는 기존의 사직단·문묘·성황단·여단에 이어 고산서원을 신증하였다. 고산서원은 원래 만력 초기에 현령 윤희렴이 서재를 열어 학문을 연마하던 곳이었다.<sup>16)</sup> 1693년(숙종 19) 서재에 서원을 세워 이황과 정경세의 위패를 모셨으나 사액 받지 못한 상태였다. 명환은 『여지승람』의 신라 김유신·김인문, 본조 손옥, 신증 안만철을 수록하면서 신증을 구증으로 고쳤다. 신증한 이원구는 1668년(현종 9)에 부임하여 선정을 베푼 인물이며, 고을 사람들이 생사당(生祠堂)을 만들어 1760년 당시까지도 봄가을로 제사 지내고 있었다. 인물에는 『여지승람』에 실렸던 고려 김정미(金庭美)와 본조 전백영(全伯英), 효자 본조 손일선(孫日宣) 다음에 ‘신증’을 표시한 뒤, 효자 하한경(河漢京), 박홍록(朴弘祿), 여대익(呂大翊), 열녀 사비(私婢) 덕지(德之)와 사비 수옥(守玉)을 추가하였다. 제영은 기존의 서거정 시에, 이언적의 시를 신증하였다.

조선전기 자인현은 경주부의 속현이었으며, 여러 차례 청원 운동을 거쳐 1637년(인조 15)에 복설된 곳이다. 『여지도서』 「대구진관자인현」은 본문 16면 분량으로, 형승, 성지, 능침, 궁실, 충묘, 교량, 관애, 봉수, 진보 9개 항목을 생략하여 수록항목은 31개이다. 학교에 실린 향교는 현의 동쪽 1리 되는 곳에 있었으며, 단묘에는 이언적을 배향하는 관란서원(觀瀾書院), 의병장으로 한성우윤에 추증된 최문병(崔文炳)을 기린 충현사(忠賢祠), 유학 이광후(李光後)와 이창후(李昌後) 형제의 위패를 모신 향현사(鄉賢祠)를 수록하였다. 명환에는 신설 당시의 현감인 임선백(任善

16) 1570년 6월 경산현령으로 부임한 尹希廉(1517~1574)은 1574년 9월 7일에 임지에서 사망하였으며, 9월 20일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따라서 만력 초기는 1573~1574년(萬曆 1~2년)에 해당한다. 윤희렴은 당시 세운 서재의 이름을 고산서원이라 칭하였다. 沈喜壽, 「慶山縣令尹公墓碣銘 并序」, 『一松集』 권8 “萬曆甲戌九月初七日 慶山縣令尹公卒二官 享年僅五十有八 … 乃以正德丁丑四月十八日生公 … 庚午六月 乃有慶山之行 祿止於斯 豈非命歟 … 卜地縣北親構藏修之所 號曰孤山書院 自撰學範 …”; 『선조실록』 권8, 선조 7년 9월 20일 신묘. “有政 故師傅慶山縣令尹希廉 贈左承旨”

伯), 인물에는 효자 서렴(徐濂)과 박정우(朴正右)를 실었다. 제영에는 현감 임선백의 객사(客舍), 도사 홍대유(洪大猷)의 요산루(樂山樓), 현감 이적의(李適意)의 동헌(東軒) 시를 수록하였다.

『여지도서』 「대구진관하양현」은 본문 11면 분량이며, 형승, 성지, 능침, 궁실, 충묘, 교량, 관애, 진보, 제영을 생략하여 수록항목은 31개이다. 학교에 실린 향교는 『여지승람』에는 현의 서쪽 3리 되는 곳이었는데, 『여지도서』에는 현의 북쪽 5리로 표시하여 향교의 이전 사실을 알 수 있다. 단묘에는 허초(許稠)를 봉안(奉安)한 금호서원(琴湖書院)을 신증하였으며, 명환은 『여지승람』에 실렸던 본조 채윤(蔡倫)만 실었다. 인물은 임진왜란 의병장인 신해(申海)와 용천수령으로 있을 때 사람을 해치던 호랑이 두 마리를 활로 쏘 죽이고, 통제사와 포도대장에 이른 김시성(金是聲)을 신증하였다.

### 3. ‘경상도읍지’(1786)

1768년(영조 44) 홍문관에서는 『여지도서』를 보완한 새로운 읍지 수록규정을 하달하였다. 『여지승람』(1531)과 『여지도서』(1760)의 개설항목들을 모두 다 수록하였고, 『여지승람』의 항목명과 수록순서를 존중하였으며, 장시(어염 포함)·환적·과거·비판(비문+책판)을 신설하였다. 영조 집권 말기 지방행정과 재정은 물론, 상업·인물·시문·출판에 관심이 높아지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sup>17)</sup>

정해진 기간 내에 읍지를 상송해야 하는 지방관이나 향리들은 구지를 그대로 베껴 보내거나 『여지도서』 계통의 읍지를 편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새로운 규식에 따라 읍지를 편찬하기보다는 이전에 편찬한 적이 있는 『여지도서』 계통의 읍지를 선호한 것이다. 그리하여 1775년(영조 51) 홍문관에서는 『여지도서』 수록항목을 그대로 두고 권말에 책판과

17) 이재두, 「1768년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형의 확산과 정착」, 『규장각』 53, 2018, 291쪽.

선생안을 신설하고, 누정에 제영을 부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지도서』 증보유형이라 할 만하다.<sup>18)</sup> 경산지역에는 1768년과 1775년에 편찬한 읍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조대에 편찬한 경산현과 하양현의 읍지가 1768년에 보급한 『여지도서』 보완유형이고, 자인현의 읍지가 1775년의 『여지도서』 증보유형을 따른 것을 보면, 영조 말 경산지역에서도 새로운 수록규정에 따라 읍지를 편찬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다.

정조는 영조 후반기에 여러 차례 편찬한 ‘해동읍지’(『여지도서』·『각도읍지』 등)와 『여지승람』 수록항목을 재구성한 『해동여지통재』를 출판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대체하고 싶어 하였다.<sup>19)</sup> 경상도는 1786년(정조 10)에 이어 1789년(정조 13)에 편찬한 도지(道誌)가 현전한다.

일본 덴리대학 덴리도서관 이마니시문고의 ‘경상도읍지’는 1786년 각 고을에서 편찬한 읍지를 사주쌍변(四周雙邊)에 면당 10행×20자, 협주는 쌍행으로 인찰공책지에 정서한 선본(善本)이지만 지도를 생략하였다.<sup>20)</sup> ‘경상도읍지’에는 경상도 71개 고을 중 62개 고을의 읍지가 남아있으며, 경산현의 읍지는 『의성지』(292.1-291), 자인현과 하양현의 읍지는 『자인지』(292.1-293)에 합철되어 있다.<sup>21)</sup>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경산현읍지』(奎 17440)와 『하양현지』(奎 17463)는 1910년대에 이마니시본을 베낀 것이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육군문고 『경상도읍지』의 제15-2책

18) 자세한 내용은 이재두, 앞의 논문, 2019d, 111~132쪽을 참고할 것.

19) 이재두, 「정조대의 전국읍지 편찬 사업 재검토」, 『한국사연구』 189, 2020c, 111~154쪽을 참고할 것.

20) 이재두, 「1786년 편찬한 이마니시문고 『경상도읍지』의 분석과 그 의미」, 『동방학지』 188, 2019e, 69~106쪽; 『산남여도』는 ‘경상도읍지’의 첫 장에 수록할 지도로 제작하였던 것 같다. 고을마다 모두 四周雙邊을 새긴 목판으로 찍은 용지에 양면에 걸쳐 한 장씩의 지도를 그렸는데, 산·하천·도로·건물·임수에 일정한 색을 사용하여 마치 한 명의 화원이 그린 듯하다. 『山南輿圖』 乾·坤(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 사-11 200037); 이재두, 학위논문, 2021b, 119~120쪽.

21) 금호서원의 『하양현지』는 당시 편찬한 읍지의 副本으로 고을에 남겨진 것이다. 이마니시문고의 「하양현지」와 수록 내용이 같지만, 이마니시본과 달리 권두에 2면의 채색지도를 수록하였고, 권말에 “乾隆五十一年丙午六月日時僧統贊日/前書記定佑 時書記定瑞 卽建”과 함께 官印을 찍었다.

「경상도경산현읍지」, 제22-1책 「자인현지」, 제31-2책 「하양현읍지」도 이마니시본을 베낀 것이다.<sup>22)</sup>

호구를 보면 경산현은 병자식(丙子式, 1756), 자인현과 하양현은 병오식(丙午式, 1786)이다. 세 고을 모두 『여지도서』 편찬 당시 호수 3,143호, 2,970호, 1,655호보다 많은 3,256호, 3,210호, 1,687호이다. 경산현은 남 7,255명, 여 8,287명, 자인현은 남녀 합쳐 12,208명, 하양현은 남 3,124명, 여 3,936명이다. 환적은 경산현이 1783년에 부임한 이명우(癸卯 莅任),<sup>23)</sup> 자인현이 1783년에 부임한 이현채(癸卯 莅任),<sup>24)</sup> 하양현이 1783년 초에 부임한 임희택(癸卯 莅任)까지인데,<sup>25)</sup> 읍지 편찬 당시 지방관의 전임자이다. 읍지 편찬 당시 경산현령은 조진명, 자인현감은 심달한, 하양현감은 박길원이었다.

「경상도경산현읍지」(1786)는 내제 ‘경상도경산현읍지’ 다음 행에 『여지도서』처럼 ‘대구진관경산현’을 쓴 뒤 ‘강역’을 표시하였다. 목차는 건치연혁, 군명, 관직, 성씨, 산천, 풍속, 방리, 호구, 전부(田賦), 군역, 성지, 공해, 창고, 축물, 봉수, 학교, 단묘, 불우, 누정, 도로, 교량, 제언, 장시, 역원, 목장, 형승, 고적, 토산, 진공, 봉름(俸廩), 환적(宦蹟), 과거, 인물, 제영, 비관 순이다. 축물(畜物)은 다른 고을의 읍지에서는 보기 드문 항목이며,<sup>26)</sup> 비관(碑板)에는 비문(碑文) 없이 책판(冊板)만을 수록하였고, 관방·진보·능묘·도서는 생략하였다.

과거에는 고려 말 공민왕대에 급제한 전백영과 박해(朴咳) 및 1543년 급제한 진관(陳瓘)을 수록하였다. 인물에는 고려 김정미, 정연(鄭珣), 본

22) 이재두, 「규장각 일부 후사본 읍지와 이마니시문고의 관계」, 『한국민족문화』 74, 2020a, 201~242쪽.

23) 『승정원일기』 정조 7년(1783) 6월 5일 을축 “以李命瑀爲慶山縣監”, 정조 9년(1785) 12월 1일 병자 “趙鎭明爲慶山縣令”

24) 『승정원일기』 정조 6년(1782) 12월 29일 신묘 “李顯采爲慈仁縣監”, 정조 8년(1784) 6월 29일 임자 “沈達漢爲慈仁縣監”

25) 『승정원일기』 정조 6년(1782) 12월 29일 신묘 “任希澤爲河陽縣監”,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12월 27일 임인 “朴吉源爲河陽縣監”

26) 『포산지』와 『金馬志』(奎 12716)에도 雜畜이 보인다. 이재두, 「1635년(인조 13) 현 풍현감 김세림의 『포산지』 편찬」, 『퇴계학과 유교문화』 58, 2016, 287쪽.

조 서사선(徐思選)과 효자 손일선, 하한경, 박홍록, 여대익, 서도기(徐道機), 정태주(鄭泰周), 장해봉(蔣海鵬), 열녀 사비 덕지와 사비 수옥을 실었다. 제영에는 서거정, 이언적, 김안국의 시와 현령 엄경하(嚴慶遐)가 지은 명륜당과 고산서원 시를 실었다. 비판에 실린 이간(李柬)의 『외암집(巍巖集)』 8권은 아들 이이병(李頤柄, 1758~1762 재임)이 경산현령으로 있으면서 판각하였으며, 인리청(人吏廳)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과거 · 인물 · 제영은 1789년지 · 1832년지 수록 내용과 동일하다.

『자인현지(慈仁縣誌)』(1786)는 기본적으로 『여지도서』 목차를 바탕으로 누정에 제시(題詩)를 신고, 책판과 환적을 추가한 『여지도서』 증보유형이다. 목차는 방리, 도로, 건치연혁, 군명, 형승, 성지, 관직, 산천, 성씨, 풍속, 능침, 단묘, 공해, 제언, 창고, 물산, 교량, 역원, 목장, 관애(關陘), 봉수, 누정제시, 사찰, 고적, 진보, 인물, 한전(旱田), 수전, 진공, 조적, 전세, 대동, 군세, 봉름, 군병, 책판, 환적 순이다. 자인현에 해당 없는 성지 · 능침 · 교량 · 목장 · 관애 · 봉수 · 진보 · 책판 항목 뒤에는 ‘무(無)’라고 표시하였다.

방리는 ‘상동면 속리 13’처럼 8개 면과 각면에 속한 리의 수만을 간단히 기재하였다. 건치연혁에서는 자인현이 경주의 속현(屬縣)인 채로 있다가 주민들의 청원으로 1637년(인조 정축)에 현감이 파견된 사실과 1653년(효종 계사)에 구사부곡(仇史部曲)을 함속한 사실을 간단히 기재하였다. 산천에는 구룡산(九龍山)을 비롯한 9개의 산과 2개의 천과 그 위치를 적었다. 풍속은 질박하다고 하고, 여원무(女圓舞)를 두어 ‘한장군(韓將軍) 놀이’라는 춤의 유래에 대해 상세히 적었다. 단묘에는 사직단 · 문묘(文廟) · 성황사 · 여제단과 함께, 관란서원 · 충현사 · 상덕사의 위치와 내력을 부기하였으며, 한장군당(韓將軍堂)을 실었다. 인물에는 신라 홍유후 설총, 본조 효자 이승증(李承曾), 서렴, 박정우, 정삼변(鄭三變), 최문병, 이광후 · 창후, 김응명(金應鳴)을 실었다. 누정제시(樓亭題詩)에는 요산루(樂山樓)와 객사(客舍)를 실었다. 객사에 실린 박문우(朴文祐)의 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제영에 실린 것이다.

『하양현지(河陽縣誌)』(1786)는 『여지도서』 보완유형의 목차와 항목명



〈그림 1〉 하양현의 1786년지  
[소장처 : 왼쪽부터 육군문고, 규장각, 이마니시문고, 금호서원]

을 일부 변형하였다. 목차는 건치연혁, 현명(縣名), 관직, 성씨, 산천, 풍속, 방리, 도로, 교량, 제언, 전결(田結), 부역, 봉름, 토산, 진공, 군병, 봉수, 창고, 조적(糶糴), 교원(校院), 단묘, 공해, 장시, 역원, 환적, 과제(科第), 인물, 서적(書籍), 고적, 누정제영, 사찰, 형승, 비문 순이다.

방리에는 ‘읍내면 7동’을 비롯하여 마양면·안심면·낙산면·중립면·와촌면·북면까지 관문으로부터의 거리와 해당 동의 수를, 교량에는 구룡교·남천교·사탄교를 실었다. 과제문과의 허조(許稠), 허성(許誠), 허계(許誡), 허후(許誦), 허조(許慥), 허보(許輔), 허량(許亮)은 1389년부터 1540년까지의 문과 급제자들로 모두 하양 허씨이다. 인물에는 『여지승람』에 실린 허주(許周), 허조, 허적(許倜), 허성, 허계, 허후, 허조, 윤인후(尹仁厚), 허중견(許仲堅), 신희(申休) 외에 신헌(申海)와 김시성(金是聲)을 추가하였다. 서적에는 환성사에 있던 허조의 『경암유사(敬庵遺事)』 1권, 허후의 『정간공유사(貞簡公遺事)』 1권, 허적(許適, 1563~1640)의 『수색집(水色集)』 4권, 이평(李坪)의 『예제집』 1권을 실었다.

『여지승람』과 비교해 보면, 고적은 『여지승람』의 양양촌부곡(陽良村部曲)·이지부곡(梨只部曲)·안심소(安心所)·양량원(陽良院)·이지폐현(梨旨廢縣) 그대로이며, 누정제영(樓亭題詠)에는 『여지승람』 제영의 용벽루(聳碧樓)에 금포정(錦浦亭)과 청금헌(聽琴軒)을, 사찰에는 신평사·남태사에 환성사를 추가하였다. 비문에는 마양면에 있던 통제사 김시성의 신도비 전문을 수록하였다.

#### 4. 『영남읍지』(1789)

1789년(정조 13) 6월 본격적인 『해동여지통재』 편찬을 앞두고 경상도 각 고을에서는 1786년에 이어 읍지를 상송하였다. 대체로 1786년지를 기준으로 호구와 부세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환적에 1786년지 편찬 이후에 부임한 지방관 역임자를 추가하였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영남읍지(嶺南邑志, 실제로는 嶺南邑誌)』(217-1) 전16책은 「경상감영지」(16)와 함께 경상도 71개 고을 모든 읍지를 포함하고 있다.<sup>27)</sup> 모두 인찰공책지에 정서한 선본이며, 「자인현지」(13-1)와 「하양현지」(12-1)는 면당 10행×20자, 「경상도경산현읍지」(13-2)는 12행×21자이다.

「자인현지」(1789)에서 누정제시를 누정제영으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면, 경산지역 세 고을의 1789년지는 1786년지와 수록항목이 같다. 다만, 이마니시본과 달리 권두에 지도를 수록하였으며, 호구는 기유식(己酉式, 1789)으로 1789년에 편찬한 『호구총수』 기록과 같다. 경산현은 3,431호, 15,551명, 자인현은 3,220호, 남녀 합쳐 12,262명, 하양현은 1,690호, 남 3,128명, 여 3,951명이다. 전부의 한전·수전·전세·대동 등은 1788년(戊申) 기준이다. 「자인현지」(1789) 인물은 1786년지에서 신라 홍유후 설총, 본조 효자 이승증, 서림 순이던 것을 효자 서림, 신라 홍유후 설총, 본조 효자 이승증 순으로 변경하였다. 환적은 1785년 말에 부임한 경산현령 조진명(乙巳 莅任),<sup>28)</sup> 1789년 초 부임한 자인현감 한영규(己酉 莅任),<sup>29)</sup> 1783년 초에 부임한 하양현감 임희택(癸卯 莅任)까지이다.<sup>30)</sup> 자인현은 읍지 편찬 당시의 현직 지방관이었다.

27) 국립중앙도서관의 『문경현지』(고조62-196) 권말 기록(崇禎紀元後三己酉三月 日) 등을 참고하면 1789년 전반기에 편찬한 것이다.

28)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12월 1일 병자 “趙鎭明爲慶山縣令”, 정조 13년(1789) 1월 4일 신유 “再政. 以金琫爲慶山縣令”

29) 『승정원일기』 정조 12년(1788) 12월 20일 정미 “韓永達爲慈仁縣監”

30) 『승정원일기』 정조 6년(1782) 12월 29일 신묘 “任希澤爲河陽縣監”; 임희택의 후임으로 1786년 초에 부임한 박길원 재임 당시 1786년지와 1789년지가 편찬되었다.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12월 27일 임인 “朴吉源爲河陽縣監”, 정조 13년(1789)



### Ⅲ. 19세기 중엽 순조·헌종·철종대의 읍지

#### 1. 『경상도읍지』(『각도읍지』, 1832)

선행연구에서는 영조·정조대를 거치면서 활발하게 진행된 관찬 지지서의 편찬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쇠퇴해갔으며, 계속되는 세도정치와 사회 혼란으로 관찬 지지의 편찬이 위축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31)</sup> 그러나 19세기 중엽 순조·헌종·철종대에 편찬한 다수의 도지가 확인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1832년(순조 32) 규장각에서는 『각도읍지(各道邑誌)』에 빠진 고을의 읍지를 채워 넣기 위해 읍지 수집 공문을 내려 완질을 갖추었다.<sup>32)</sup>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경상도읍지』(奎 666)는 원래 『각도읍지』 경상도편 20책이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각도읍지』 80책 가운데 경상도편을 1878년에 편찬한 『(경상도)읍지』 14책으로 교체함에 따라 국내에 남게 되었다. 당시 경상감영에서는 각 고을 읍지를 『여지도서』 보완유형(『경상도읍지』 유형)으로 통일하였다. 기준에 미달하는 읍지를 제출한 고을에는 여러 차례 수정 지시가 내려졌으며, 최종적으로 경상감영에서는 수정·보완하여 동일한 인찰공책지에 정서하였다.<sup>33)</sup> 경산현의 읍지는 제 12-1책, 자인현은 제 16-1책, 하양현은 제 20-2책에 해당한다.

1768년에 보급한 『여지도서』 보완유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수록 순서를 중심으로 『여지도서』의 항목들을 모두 다 수록하였으며, 요역, 장시(어염 포함), 환적, 과거, 비판(비문+책판)을 신설하였다. 1832년에는 군기와 임수를 독립항목으로 분리하였다. 이 유형은 『여지도서』 경상도편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것이며, 선현의 사적과 시문을 중요하게 여긴

9) 6월 9일 계해 “洪樂教爲河陽縣監”

31) 오상학, 『한국전통지리학사』, 들녘, 2015, 348쪽.

32) 자세한 내용은 이재두, 「2011년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 『읍지』 74책의 유래와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94, 2020d, 377~410쪽을 참고할 것.

33) 이재두, 앞의 논문, 2018, 283~287쪽.

영조와 정조의 읍지 편찬의 이상을 반영한 것이다. 성리학의 수용과 실천에 모범이 된 선현이 많은 경상도의 사족들은 이 유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상도 고유의 읍지 유형으로 정착시켰다.<sup>34)</sup>

진단학회에서 소장하였던 『대구진관하양현지』(想白古 915.15-H321, 1832)는 1832년 경상감영에서 정본화하기 이전에 편찬한 초고본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 환적은 신명강(申命康 己丑 莅, 1829년 부임)까지인데, 읍지 편찬 당시의 지방관이다. 1832년 규장각에서 읍지 수집 공문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경상감영에서 수정보완한 정본인 『경상도읍지』 「하양현읍지」(1832)의 초고본이다.

「하양현읍지」(1832)는 수록순서와 항목명을 바로잡았다.<sup>35)</sup> ‘대구진관하양현지’라 하였던 내제를 다른 고을처럼 ‘하양현읍지’로 통일시켰다. 정본화하면서 현명(縣名)과 과제(科第)는 군명(郡名)과 과거(科擧)로 일치시켰으며, 독립항목이었던 공역(貢役)과 요역(徭役)을 전부(田賦)에 수록하였다. 하양현에 해당 없던 성지·임수·관애·진보·능묘·관실·도서·목장 뒤에 ‘무호사(無乎事)’라 썼던 것을 『경상도읍지』(1832)에서는 ‘무(無)’로 일치시켰다. 관실(官室)은 궁실(宮室)에 해당하는데, 공해(公廩)로 바꿔 객사·향청·군관청·장관청·인리청·현사를 나열하였다. 용벽루, 금포정, 청금헌의 유래와 시를 실었던 누정제영을 누정으로 고쳐 그대로 실었으며, 항목을 분리한 제영 뒤에는 ‘무’라고 표시하였다. 초고본에는 비관에서 통제사 김시성의 신도비를 소개만 해두었으나, 『경상도읍지』에서는 비문 전체를 수록하였다. 책판에서도 『경암집』·『정간유사』·『수색집』·『예재집』이 환성사에 있다고만 밝혔으나, 『경상도읍지』에서는 누구의 문집이며 몇 권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하양현읍지」(1832) 호구는 기준연도가 나오지 않지만 경산현과 자인현 등 다른 고을이 1831년(신묘식)인 점을 고려하면 1831년으로 여겨진다. 1,726호, 7,175명 중 남자가 3,962명이며, 여자가 3,213명이다. 불우·누정·고적·과거·비판·책판은 1786년지의 사찰·누정제영·고

34) 이재두, 앞의 논문, 2018, 287~304쪽.

35) 이재두, 앞의 논문, 2018, 285~286쪽.

적·과제·비문·서적의 수록 내용과 같고, 인물에는 조조이[趙召史]를 추가하였다. 초고본인 『대구진관하양현지』(1832)에는 황경림(黃慶霖), 김거(金鑣), 박봉(朴鵬), 김시명(金是鳴), 허량(許亮), 허이청(許以淸), 배이인(裴爾仁)이 더 실려 있는데, 이들 7명은 경상감영의 정본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경산현읍지」(1832)는 1786년지와 1789년지에 비하여 임수와 군기를 신설하고, 축물을 제외하였으며, 항목을 생략하였던 관애·진보·능묘·도서 뒤에는 없다[無]는 사실을 밝혔다. 임수에는 현 북쪽 8리에 있던 경림(瓊林)을 수록하였는데, 1899년지에서는 금포림을 추가하였다. 방리에는 읍내면 성내 4부, 성외 18개 리(청우동은 리로 표시하지 않음), 동면 16리, 남면 13리, 서면 14리, 북면 9리 등 모두 5개 면에 속한 리의 수를 기재하면서 관문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재하였다. 1758년지에서 방(坊)으로 기재하였던 것을 1786년지와 1789년지에 이어 리(里)로 일치시켰다. 1786년지에서 신교촌, 구교촌이라 기재한 것은 신교리, 구교리로 고쳤다. 호구는 1831년(辛卯式) 기준으로 3,025호, 14,272명이었다. 환적은 당시 지방관이던 임태로(任泰魯 戊子 蒞任, 1828년 부임)까지이다.

「자인현읍지」(1832)는 경상감영의 방침에 따라 『여지도서』 보완유형으로 일치시켰다. 1786년지와 1789년지는 『여지도서』 수록순서를 따르면서 누정에 제시를 싣고, 책판과 환적을 수록한 『여지도서』 증보유형이었다. 성지, 임수, 관애, 진보산성, 봉수, 능묘, 교량, 도서, 목장, 과거 뒤에는 모두 없다[無]는 사실을 밝혔다. 건치연혁에서는 1786년지나 1789년지에 비하여 자인현의 복설에 대한 내용을 풍부히 수록하였다. 방리도 이전 읍지보다 내용이 상세하다. 8개 면 31개 동(同)에 속한 리(里)의 관문으로부터의 거리를 나열하였다. 상동면, 하동면, 상남면, 하남면, 읍내면, 서면, 상북면, 하북면마다 몇 개의 동을 두고 동 아래는 각각 1개부터 여러 개의 리를 두는 방식으로 편성하였다. 예컨대 상동면에는 6개 동이 속해 있으며[屬洞六], 그 가운데 하나인 동초동(東初洞)에는 1개 리가 속해 있는데 관문으로부터 5리 떨어져 있는 원당리(元堂里)

이다. 다른 고을은 면·리 2단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자인현은 면·동·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호구는 1831년 기준으로 3,246호, 12,690명 중 남자가 5,185명이며, 여자가 7,505명이다.

학교에 실린 향교는 현의 동쪽 1리 되는 곳에 있으며, 명종대인 1562년 경주부윤 이정(李楨)이 경주부의 속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때의 옛터에 처음 세운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뒤 1612년 자인현 사람인 이춘암(李春菴) 등의 상소로 중건하였으며, 1675년 도천산 아래로 이건하였다가, 1728년 지금의 자리로 이건한 사실을 밝히면서 문루에 있는 조선적(曹善迪)이 지은 흥학기(興學記)를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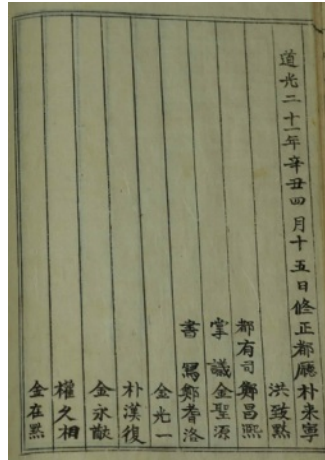
환적은 1831년에 부임한 채동직(蔡東直 辛卯 莅任, 1831년 부임)까지인데, 읍지 편찬 당시의 지방관이다. 인물에는 1789년지 수록 인물에 효부 배씨, 김경복(金景復), 열녀 양씨(梁氏)를 추가하였다. 제영에는 객사와 요산루만이 아니라, 사중당(使衆堂)·대흥사(大興寺)·반룡사(盤龍寺)·신림사(新林寺)에 붙인 역대 현감의 시문(詩文)을 추가하였다. 비판에는 책판(冊板)이 없음을 기재하고, 반룡사의 사적비(事蹟碑)와 대흥사의 종덕비(種德碑) 비문 전체를 수록하였다.

## 2. 『영남여지』(1841)

그동안 1840년대에 편찬한 도별읍지는 경기와 충청도 정도만 알려져 있었다. 연대기 사료에는 현종대의 읍지 편찬 관련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현종대인 1840년대에는 경상도부터 연차적으로 도지(道誌)를 편찬하였다.<sup>36)</sup> 『영남여지(嶺南輿誌)』는 1832년에 편찬한 『경상도읍지』를 바탕으로 일부 항목들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준경각의 『영남여지』 「경산현읍지」·「자인읍지」와 경산시립박물관에서 구입한 『하양현읍지』(경산1069)는 모두 1841년에 편찬한 경상도 도지의 일부이다.

36) 이재두, 「조선후기 경상도 읍지 편찬 사업 재검토」, 『대구사학』 138, 2020b, 51~55쪽; 이재두, 학위논문, 2021b, 169~178쪽.

개인 소장본 『영남여지』(개령현·의령현) 표지의 우측 하단에 공16(共十六)이 적힌 기록을 보면 원래는 16책이었으며, 이 책의 표제를 보면, 원래는 개령현·의령현만이 아니라, 하양현·용궁현·봉화현·청하현·언양현·진해현까지 합철하였다. 『하양현읍지』는 이 책에 합철되어 있다가 개별 읍지로 분책한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하양현읍지』 권말 유사록(有司錄)을 보면, 1841년 4월 15일에 편찬한 읍지이다. 『영남여지』에 포함되었던 『현풍현읍지』·『예천군읍지』·『안동진관영천군[지]』의 유사록에도 동일한 날짜와 인물들을 기재한 것을 보면, 『영남여지』는 감영 등에서 일괄적으로 편찬한 것이다.



<그림 2> 『하양현읍지』 권말

『경산현읍지』(1841) 과거·인물·제영·책판의 수록 내용은 1832년지와 같다. 2면이었던 지도는 1면이며, 호구는 1840년(庚子式) 기준으로 2,884호, 13,875명이다. 환적은 1838년 부임한 서유교까지이다.<sup>37)</sup> 『자인읍지』(1841)의 호구는 1840년 기준으로 3,249호, 12,796명이며, 환적은 1838년 부임한 김두명까지이다.<sup>38)</sup> 1832년지와 비교해 보면, 단묘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 한종유(韓宗愈)를 기리는 일한묘(一韓廟)와 안우(安祐)를 주향하고 안지(安止)를 배향한 조곡사(早谷祠)를 추가하였다. 인물에는 최인수(崔仁壽), 최준립(崔峻立), 최응수(崔應守), 최동립(崔東立), 강우창(姜遇昌), 송상운(宋相運)을 추가하였다.

『하양현읍지』(1841)의 호구는 1,732호, 7,219명(남 3,131명, 여 4,080명)이다. 환적의 마지막에 실린 조성진(趙星鎭 甲午 來)은 1834년에 부임하여 1839년에 교체되었다.<sup>39)</sup> 1832년 감영의 정본인 『경상도읍

37) 『승정원일기』 헌종 4년(1838) 7월 6일 을사 “徐有喬爲慶山縣令”

38) 『승정원일기』 헌종 4년(1838) 6월 25일 갑오 “金斗明爲慈仁縣監”

39) 『승정원일기』 순조 34년(1834) 6월 25일 기미 “趙星鎭爲河陽縣監”, 헌종 5년(183

지』에 비해, 인물에 황경림·김거·박봉·허이청·배이인이 더 실려 있다. 『대구진관하양현지』와 같은 1832년 초고본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항목명도 군명 대신 현명을 사용하였으며, 전부에 포함하였던 전세·대동을 요역(徭役)으로 분리하였다.

### 3. 『하양현지』(1856)

『하양현지』(古 4790-4)는 철종 재위기인 1850년대에 편찬한 읍지이다. 다른 읍지들과 달리 인찰공책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면당 15행×24자이며, 환적은 권말에 두었다. 표제가 ‘화성지(花城誌)’이며, 개장한 표지의 표제는 ‘하양현지(河陽縣誌)’이다. 내제 ‘하양현지’ 아래에는 협주로 ‘경상도 대구진’이라 하였다. 환적에는 이정병(李正秉)이 1856년 6월 25일 경모궁령(景慕宮令)에서 하양현감으로 임명되어 7월 20여 일에 부임한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다. 본문이 26면이지만 환적이 16면 분량이며, 본문과 별개로 백지 4장이 들어있다.

목차는 건치연혁, 현명, 관직, 성씨, 산천, 풍속, 방리, 호구, 전결(田結), 요역, 군액, 창고, 봉수, 학교, 단묘, 공해, 누대(樓臺), 사찰, 형승, 장시, 역원, 조적, 도로, 교량, 제언, 고적, 서적, 봉림, 진공, 토산, 성지, 임수, 관방(關防), 진보, 능묘, 도서(島嶼), 목장, 제영, 군기집물(軍器汴物), 과제문과(科第文科), 인물, 환적 순이다. 지도·비판·책판이 없고, 관애(關陞)를 관방, 누정을 누대라 하였다. 『대구진관하양현지』(1832)처럼 해당 없는 항목에는 ‘무호사(無乎事)’라 썼다. 호구·시기전(時起田)·답(沓)의 수치는 모두 1832년 읍지 편찬 당시의 통계이다.

과제·인물·환적은 인물별로 행을 달리하였으며, 서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과제문과의 7명과 인물의 9명은 하양 허씨인데, 대체로 조선 전기 사람들이며, 다른 성씨는 인물에 10명이 수록되어 있다. 『경상도읍지』(1832)에 빠졌던 황경림·김거·박봉·김시명·허이청·배이후를 실

9) 6월 29일 기사 “... 趙星鎭爲氷庫別提 ... 徐有始爲河陽縣監 ...”

었다. 환적은 ‘통훈대부 행하양현감 겸 대구진관병마절제도위 환적(通訓大夫行河陽縣監兼大邱鎭管兵馬節制都尉宦蹟)’으로 표시하였다. 채윤(蔡倫)과 송을(宋乙)은 각각 구지에 실려 있다[載舊誌]고 하였는데, 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말한다. 채윤은 명환에 실려 있으며, 누정을 보면 송을은 1416년(영락 병신)에 용벽루를 세운 인물이다. 채윤이 1427년 현풍현감에 임명된 점을 고려하면,<sup>40)</sup> 송을은 채윤보다 앞서지만, 환적에는 채윤·송을 순으로 기재하였다. 학교·과제·환적에서 명·청의 연호와 고려·조선의 왕력을 표시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sup>41)</sup>

## IV. 19세기 말엽 고종대의 읍지

### 1. 『영남읍지』(1871)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직면한 고종 집권기의 조선·대한제국은 근대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각 고을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읍지를 수집하였다. 1871년 9월 의정부에서는 각 고을에 읍지, 지도, 읍사례 및 영·진·역지를 편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각 고을에서는 장당 20행인 책판 견본에 맞추고 지도를 실어 읍지를 편찬한 뒤 성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영으로 보냈다. 감영에서는 일정하게 성책한 뒤 상자에 넣어 의정부로 보냈다.<sup>42)</sup>

『영남읍지』(奎 12173)는 1871년 전국읍지 편찬 사업에 의해 편찬·상송한 경상도 64개 고을의 읍지, 11개의 역지(驛誌), 진주와 울산의 목

40)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1427) 7월 18일 갑진 “玄風縣監蔡倫等辭”

41) 琴湖書院의 사액된 1790년은 ‘大清奉天承運皇帝乾隆五十五年 我正宗十四年庚戌’으로 기재하였으며, 과제에서도 ‘大明太祖洪武二十二年高麗辛昌元年己巳登第’라 하였고, 환적에서는 수록인물의 연대를 ‘大明神宗萬曆’, ‘大清聖祖康熙’ 등과 함께, 조선의 왕력까지 환산하여 수록하였다.

42) 이재두, 학위논문, 2021b, 178~181쪽.

장지(牧場誌), 부산·가산·다대의 진지(鎭誌)를 합철한 도지(道誌)이다. 『경상도읍지』(1832)와 달리 재필사 과정 없이 각 고을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그대로 합철하였으며, 7개 고을의 읍지는 없다. 『영남읍지』(1871) 경산현과 하양현은 제7-3책과 제7-4책, 자인현은 제9-4책에 해당한다. 환적은 1867년에 부임한 경산현령 이준영(李俊永), 1871년에 부임한 하양현감 조희식(趙熙軾), 1869년 12월에 부임한 자인현감 류도석(柳道奭)까지이다. 자인현은 본문이 54면으로 건치연혁·학교·제영·비판에 많은 내용을 수록하여 분량이 가장 많고, 하양현은 지침에 따라 권말에 읍사례대개(邑事例大槩)를 실었지만 16면에 불과하다.

「경산현읍지」(1871)는 해당 사항이 없는 임수·관애·진보·능묘·공해·도서 항목을 생략하였으며, 1832년지에서 제외시켰던 축물(畜物)을 두어 지금은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구는 1870년(庚午式) 기준으로 3,165호, 16,131명이다. 1832년지 이후 과거에는 추가한 인물이 없으나, 인물에는 박응성(朴應成)·최대기(崔大期)·장여란(蔣如蘭)·정유악(鄭惟爚)·구태후(丘泰垆)를 비롯하여, 효자 30명, 열녀 3명을 추가하였다. 「하양현읍지」(1871)의 호구는 1,750호, 7,525명인데, 식년 표시가 없다. 인물에는 『경상도읍지』(1832)에 빠졌던 황경림·김거·박봉·허이청·배이후를 수록하였다. 읍사례대개는 신지 않았다.

「자인현지」(1871)는 영조 말인 1768년에 편찬한 읍지를 저본으로 하였다. 호구가 무자식인데, 1768년에 해당하며, 3,081호, 11,621명이다. 1832년에 추가한 임수와 군기가 없고, 장시 다음에 어염을 두어 없다[무]는 사실을 밝혔다. 단묘에는 사직단·문묘·성황사·여제단과 함께 한장군당을, 인물에는 효자 서림, 효자 박정우, 효부 배씨까지만 수록하였다.<sup>43)</sup> 권말에 환적을 두어 역대 지방관의 거주지를 비롯하여 부임한 날짜와 위임한 날짜를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읍사례대개는 신지 않았다.

43) 1832년지에서는 한장군당을 제외하였고, 관란서원·충현사·향현사를 추가하였으며, 설충, 이승증, 정삼변, 최문병, 이광후·창후, 김응명, 김경복, 열녀 양씨가 더 실려 있다. 또한, 성지, 관방, 진보, 봉수, 능묘, 교량, 도서, 어염, 목장, 과거(문과인) 뒤에는 모두 없다[無]는 사실을 밝혔다.



## 2. 『(경상도)읍지』(1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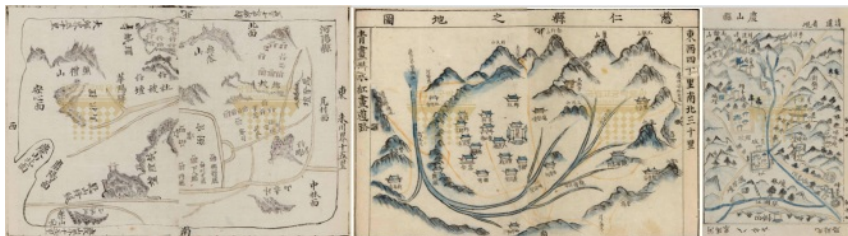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본 『읍지』 74책은 1909년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반출하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보관해 오던 것으로, 100여 년 만인 2011년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경상도편은 제37책부터 제50책까지 모두 14책인데, 다른 도와 달리 1878년(고종 15)에 편찬한 읍지이다. 숙종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기의 읍지를 저본으로 하여 환적(선생안)을 추기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경우가 많다. 원래는 열고관에 있던 『읍지』 14책으로, 이문원의 『각도읍지』 72책이나 『각도읍지』 보유편 8책과는 다른 곳에 보관하던 읍지였다.<sup>44)</sup> 「경상도경산현읍지」(50-3)는 면당 10행×16자, 「자인읍지」(46-4)와 「하양현읍지」(50-7)는 10행×20자이다.

「경산현읍지」(1878)의 축물·원(院, 서원)·비(碑) 항목명과 관작(官爵)·충·효자·효부·열녀·인물의 수록순서는 다른 읍지에서 보기 어렵다. 임수·창고·군기 항목은 없으며, 해당없는 항목은 생략하였다. 1786년에 편찬한 구지를 바탕으로 호구·환적·인물 관련 내용을 많이 추가하였다. 축물은 구지에 실렸던 돼지 100마리, 염소 14마리 다음에 지금은 없다[今無]는 사실을 밝혔으며, 환적은 1874년에 부임한 박헌양(朴憲陽)까지이다. 1786년 구지에는 인물이 효자·열녀까지 포함하여 12명이었는데, 관작 6명, 충 10명, 효자 33명, 효부 9명, 열녀 7명, 인물 19명이나 된다. 충 항목에 실린 박응성, 최대기, 장여란, 정유약, 장몽기, 구태후, 진섭, 김달선, 장유한, 배재망은 임진왜란·병자호란·무신란(1828)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창의한 인물이다. 비판의 『외암집』 책판은 생략하였으며, 비에 서사선(徐思選)의 비문을 실었다. 호구는 1876년에 해당하는 병자식으로 3,162호, 16,132명이다.<sup>45)</sup>

「자인읍지」(1878)는 호구가 1876년에 해당하는 병자식으로 3,254호,

44) 이재두, 앞의 논문, 2020d, 383~384쪽.

45) 1786년지도 병자식이지만, 3,256호에 남 7,255명, 여 8,287명으로 수치가 다르다.



<그림 3> 경산지역 1878년지의 지도(왼쪽부터 하양현, 자인현, 경산현)

12,839명이다. 지도는 하천과 산을 푸른색, 도로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1832년지 수록 내용과 비교해 보면 공해가 공실로 나오고, 어염(무)이 더 실려 있으며, 임수(무)·군기·환적이 없다. 풍속에는 혼상공빈(婚喪供賓), 장시재마(場市宰馬), 신춘금성(新春禁聲), 맹동인등(孟冬引燈)이, 단묘에는 한장군당(韓將軍堂)이, 불우에는 성재암(聖齋庵)이, 누정에는 이운재(理韻齋)가 더 실려 있다.

제언에는 제언 113곳, 천방(川防) 12곳이 실려 있는데, 1832년지와 조금 다르다. 인물은 효자 서렴, 박정우, 효부 배씨 3명뿐이며, 1832년지 편찬 당시 추가한 인물을 반영하지 않았다. 제영과 비판의 내용은 1832년지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인읍지」(1878)는 18세기 후반에 편찬한 『여지도서』 보완유형 구지를 바탕으로 호구 등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18세기 후반 자인현에서는 『여지도서』 증보유형만이 아니라, 『여지도서』 보완유형으로도 읍지를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양현읍지」(1878)는 호구가 1,750호, 7,525명인데, 기준연도가 없다. 환적은 1878년에 부임한 이만수까지 수록하였으며, 과거와 책판은 생략하였다. 인물에는 『경상도읍지』(1832)에 빠졌던 황경립·김거·박봉·허이청·배이후를 수록하였다. 고적은 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허조, 허후, 황경립, 김시성을 기리는 허문경공 묘지명(許文敬公墓誌銘), 허정간공전(許貞簡公傳), 면와 황공묘갈명(勉窩黃公墓碣銘), 김통상공묘갈명(金統相公墓碣銘)을 실었다.

### 3. 『자인읍지』(1891)

규장각의 ‘경기도도서(京畿道圖書)’ 가운데 일부는 1891년(고종 28)에 편찬한 읍지이다.<sup>46)</sup>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자인읍지』(K2-4293) 또한 이 시기에 편찬한 읍지로 보인다. 『자인현읍지』(1891)는 1832년지에서 전부(田賦)에 포함하였던 전세, 대동, 군역청, 군세, 요역을 독립항목으로 분리하였으며, 환적은 관적(官蹟)으로 변경하였다. 호구는 무오식으로 3,256호이며, 시기전답과 전세도 무오식이다. 1888년에 해당하는 무자(戊子)를 잘못 쓴 것인지, 1858년이나 1798년인지 알 수 있다. 관적은 조원식(趙元植 辛卯 莅任)까지인데, 1891년에 부임하여 1892년까지 재임하였다.<sup>47)</sup>

『영남읍지』(1895)에 후임자인 이만윤(李晩胤 癸巳 莅任)·조유승(曹有承 甲午 莅任)까지 실린 것을 고려하면 그 이전인 1891~92년에 편찬한 읍지이다. 인물에는 신라 때의 설총(薛聰)부터 진사 이호우(李浩祐)까지 44명을 신고 있다. 비판에는 책판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반룡사 사적비와 대흥사 종덕비를 수록하였지만, 내용이 많은 반룡사 사적비는 찬자만 밝히고 비문을 생략하였다.

### 4. 『영남읍지』(1895)

1894년 7월 1일 군국기무처는 각도의 감영·병영으로부터 주부군현 진역보(州府郡縣鎮驛堡)에 이르기까지 인사와 재정에 관한 사례를 부기한 읍지를 수합하도록 하였다. 1894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전국읍지 편찬 사업은 1895년까지 이어졌다. 각 고을 읍지를 감영에서 성책하였기 때문에 도별로는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였으며, 표제 표기 방식이 같다.

46) 이재두, 학위논문, 2021b, 184쪽.

47) 『승정원일기』 고종 28년(1891) 7월 29일 〈신묘〉 “趙元植爲慈仁縣監”, 고종 29년(1892) 12월 10일 갑자 “李晩胤爲慈仁縣監”, 『비서원일기』 고종 34년(1897) 11월 14일 기해 “慈仁郡守曹有承 依願免本官”

『영남읍지』(1895)는 경주·영일·장기·기장·진해를 제외한 66개 고을의 읍지와 읍사례(邑事例)를 포함하고 있다. 『경상도읍지』(1832)와 달리 재필사 과정 없이 각 고을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그대로 합철하였다. 대부분 붉은색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으며, ‘의정부(議政府)’라고 명기한 인찰판을 찍은 공책지가 다수이다.<sup>48)</sup> 경산현의 읍지는 검은색, 하양현과 자인현은 붉은색 인찰공책지에 필사하였으며, ‘의정부’ 인찰공책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경산현은 제25-4책, 자인현은 제13-2책, 하양현은 제31-3책에 해당한다. 자인현은 건치연혁·학교·제영·비판에 많은 내용을 수록하여 분량이 가장 많다. 환적을 보면 경산현과 하양현의 저본은 1789년에 편찬한 정조 때의 읍지였다. 경산현은 1785년에 부임한 조진명(趙鎭明), 하양현은 1783년에 부임한 임희택(任希澤), 자인현은 1894년에 부임한 조유승(曹有承)까지 실려 있다.

「경상도경산현읍지」(1895)는 1789년에 편찬한 구지(舊誌)를 베끼면서 호구·전부·군액·‘창고’·축물·진공·봉름을 생략하였으며, 지도도 없다. 경상도경산현사례에는 상납군(上納軍), 하납군, 각식례(各式例)가 실려 있다. 과거·인물·제영·비판의 내용은 1832년지와 같다.

「자인현지」(1895) 호구는 신묘식으로 2,920호, 12,882명이다. 1832년지의 신묘식이 3,246호, 12,690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때의 신묘년은 1891년으로 여겨지지만, 1771년의 통계일 수도 있다. 인물은 1891년지와 동일한 44명을 실었으며, 권말에는 자인읍사례를 수록하였다. 환적이 1894년에 부임한 조유승까지이고, 이호우가 1850년에 진사가 된 것을 감안하면, 경산현이나 하양현과는 달리, 1895년 읍지 편찬 당시까지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

「하양현지」(1895)는 1789년지에 편찬한 구지를 베끼면서 과제·인물·서적·고적·누정제영·사찰·형승·비문을 생략하였으며, 권말에는 하양현사례를 실었다.

48) 이재두, 학위논문, 2021b, 185~189쪽.

## 5. ‘경상북도각군읍지’(1899)

1899년 4월 대한제국 내부(內部)에서는 각 고을에 지와 지도(誌與地圖)를 각 2건씩 정서하여 보내라는 읍지수상령(邑誌修上令)을 내렸다.<sup>49)</sup>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 부·목·군·현으로 다양하게 불리던 고을 명칭을 군(郡)으로 일치시킴에 따라, 경산지역의 세 고을은 경산군·하양군·자인군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편찬한 읍지의 표제에는 대부분 ‘경상북도’ 등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전라북도각군읍지』(奎 10770)의 예를 따라 도지로 부를 때는 ‘경상북도각군읍지’라 할 수 있다.

『경산군읍지』(奎 10849)는 경산지역 읍지 가운데 내용이 가장 부실하다. 검은색 인찰공책지에 면당 10행으로 필사하였으며, 자수(字數)가 일정하지 않다. 『자인읍지』(奎 10821)는 검은색 인찰공책지에 면당 10행×23자, 『하양군읍지』(奎 10819)는 붉은색 인찰공책지에 면당 10행×20자로 필사하였다. <그림 4>에서 보듯이, 표지 우측상단에는 흰종이를 붙여 각각 제30호, 제5호, 제34호의 일련번호를 적어두었다.

『경산군읍지』는 표제와 내제 모두 ‘경상북도경산군읍지’이다. 지도 1면과 본문 4면에 불과하며, 이전의 읍지 중에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환적 등 생략한 내용이 많다. 민호 1,975호, 인구 7,355명으로 1831년의 3,025호, 14,272명의 절반 정도이다. 방리는 읍과 동남서북의 5개면(面)에 동(洞)이 모두 102개라는 사실만을 기록하였으며, 제언천방도 제언 54곳, 천방 6곳이라는 숫자만 밝혔다. 임수에는 경림과 금포림(錦鋪林)을 기재하였는데, 1832년지에는 경림만 실려 있었다.

『자인읍지』는 내제가 자인읍지이고, 표제는 경상북도자인군읍지지도(慶尙北道慈仁郡邑誌地圖)이다. 1832년에 편찬한 『경상도읍지』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보충하였다. 판적은 1899년에 부임한 이민성까지이다. 호구는 신묘식으로 2,920호, 12,882명인데, 1895년지와 수치가 같다. 1832년지에 비해, 건치연혁, 불우, 공해, 누정, 비문 항목

49) 이재두, 앞의 논문, 2021d, 237~310쪽.

의 수록내용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단모에는 일한묘, 조곡사, 구연사를 추가하였으며, 1832년지의 인물은 12명이었지만, 1899년지의 인물은 41명이다. 1891년지



〈그림 4〉 경산지역 1899년지의 표지

와 1895년지 뒷부분에 실린 배필신·김재명·이호우는 보이지 않는다.

『하양군읍지』는 표제와 내제 모두 ‘경상북도하양군읍지’이다. 1786년지를 그대로 베끼면서 방리에 수록한 호구의 수치를 1,366호, 남 2,614명, 여 1,998명으로 변경하였다. 교원에 금호서원이 1871년 조령(朝令)으로 훼파(毀破)된 사실과 환적에 1897년 부임한 유기수까지 추가하였다. 사찰에는 환성사(環城寺)가 공산(公山)에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신탄사와 남태사 기록은 생략하였다.

계명대의 『경산군읍지』(951.984 경상북ㄱ)와 『하양군읍지』(951.984 경상북ㅎ)는 수록 내용이 규장각의 1899년지와 같다. 『경산군읍지』는 규장각본과 달리 표제와 내제 모두 ‘경산군읍지’이다. 『하양군읍지』는 규장각본과 달리 권말에 ‘경상북도하양군수유기수(慶尙北道河陽郡守柳沂秀)’라 쓰고 관인을 찍었다. 유기수가 1897년 4월에 부임하여 1899년 6월에 교체된 점을 고려하면,<sup>50)</sup> 1899년 읍지수상령 당시에 편찬한 읍지이다. 그런데, 『성주군읍지』(951.983 경상북ㄴ) 환적 수록 내용이 1899년 12월(申慶均 己亥二月到任 同年十二月遞歸)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경상북도에서는 1899년 전반기 읍지수상령에 따라 읍지를 상송한 뒤, 1899년 후반기에 경상북도관찰부에서 한 차례 더 읍지를 수집하였다.<sup>51)</sup> 계명대의 ‘경상북도각군읍지’는 당시에 수집한 읍지들이다.

50) 『秘書院日記』 고종 34년 4월 25일 갑신 “任河陽郡守柳沂秀”, 고종 36년 6월 25일 신축 “任河陽郡守閔鳳鎬”

51) 이재두, 앞의 논문, 2021d, 297~298쪽.

## V. 맺음말

조선후기 읍지는 구지를 그대로 베낀 경우들이 많아 읍지 제작 당시 고을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18세기 후반 영·정조 시기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읍지 편찬에는 향촌 공의를 바탕으로 사족들이 참여하였다. 19세기 순조 말 읍지 편찬에도 사족들이 일부 참여하여 경상도 도내 전체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읍지를 편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완성한 정본은 규장각의 『경상도읍지』만 확인된다. 그렇지만 각 고을에는 18세기 후반이나 순조대에 편찬한 읍지의 고을보관용이나 초고본이 남아있었다. 각 고을에서는 이전에 편찬한 구지나 1832년지의 초고본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말단에 있던 향리들은 구지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가감하여 감영이나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편찬 시기가 후대 것이지만, 읍지 편찬 이전 시기의 통계자료가 실린 것은 구지를 재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관찬읍지는 대부분 필사본이며, 보고용으로 제작한 것을 제외하면 고을에 남긴 부분은 많지 않았다. 경산지역에는 1758년 이래 고을마다 시기별로 10종 정도의 읍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구지를 베끼면서 내용을 가감하여,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록 내용이 풍부한 선본을 고르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을마다 현전하는 읍지 전체를 대상으로 수록 내용 전체를 전산화하여 항목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통합 읍지’를 편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읍지 통합 작업’은 조선후기 지역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2년 5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개인소장본 : 『영남여지』(개령현·의령현).  
경산시립박물관 : 『하양현읍지』(경산1069).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https://library.kmu.ac.kr>) : 『경산군읍지』(951.984 경상북ㄱ), 『여지도서 : 경산하양읍지』((반)951.98 의령남), 『하양군읍지』(951.984 경상북ㅎ).  
국립고궁박물관([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 『읍지』(고궁2798).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kostma.korea.ac.kr](http://kostma.korea.ac.kr)) 일본 京都大學 河合文庫 : 『山南輿圖』 乾・坤(サ-11 200037).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http://www.nl.go.kr)) : 『문경현지』(고조62-196).  
국사편찬위원회 : 『승정원일기』([sjw.history.go.kr](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www.history.go.kr>).  
금호서원 : 『하양현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kyujanggak.snu.ac.kr/geo](http://kyujanggak.snu.ac.kr/geo))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kyujanggak.snu.ac.kr](http://kyujanggak.snu.ac.kr))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 『영남여지』(B16BB-0117) 제1책~제8책.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今西博士蒐集 マイクロフィルム版 朝鮮史原本コレクション(東京: 雄松堂書店, 1968, 天理大學 天理圖書館 今西文庫)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 장서각 <http://jsg.aks.ac.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신증동국여지승람』, 『一松集』.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 『慶尙道邑誌』(292.18-Ke1162), 『嶺南邑誌』(217-1).  
  
양진아, 「통감부의 지방합병 계획과 한성자치론의 대두」, 『한국사연구회 제342차 월례발표회 자료집』, 2022.  
오상학, 『한국전통지리학사』, 들녘, 2015.  
이광우, 이수환, 「16~17세기 慶尙道 慈仁縣 復縣 과정과 이를 둘러싼 慈仁 慶州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고문서연구』 41, 2012.  
이재두, 「1635년(인조 13) 현풍현감 김세렴의 『포산지』 편찬」, 『퇴계학과 유교문화』 58, 2016.



- 이재두, 「『헌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영남학』 60, 2017.
- 이재두, 「1768년 개발한 『경상도읍지』 유형의 확산과 정착」, 『규장각』 53, 2018.
- 이재두, 「『여지도서』의 편찬시기와 항목구성 및 신설항목의 유래」, 『민족문화연구』 82, 2019a.
- 이재두, 「숙종대의 『여지승람』 수정증보 사업과 그 의미」, 『동방학지』 186, 2019b.
- 이재두, 「영조대의 제1, 2차 읍지 편찬 사업」, 『장서각』 41, 2019c.
- 이재두, 「영조대의 제3, 4차 읍지 편찬 사업과 그 의미」, 『대구경북연구』 18-2, 2019d.
- 이재두, 「1786년 편찬한 이마니시문고 『경상도읍지』의 분석과 그 의미」, 『동방학지』 188, 2019e.
- 이재두, 「규장각 일부 후사본 읍지와 이마니시문고의 관계」, 『한국민족문화』 74, 2020a.
- 이재두, 「조선후기 경상도 읍지 편찬 사업 재검토」, 『대구사학』 138, 2020b.
- 이재두, 「정조대의 전국읍지 편찬 사업 재검토」, 『한국사연구』 189, 2020c.
- 이재두, 「2011년 환수한 국립고궁박물관 『읍지』 74책의 유래와 특징」, 『조선시대 사학보』 94, 2020d.
- 이재두, 「지리지를 통해 본 대구지역의 행정구역 변천」, 『영남학』 76, 2021a.
- 이재두, 『조선후기 관찬읍지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b.
- 이재두, 「경상도 도지의 분포와 유형 및 정보 제공 현황」, 『북현사림』 39, 2021c.
- 이재두, 「대한제국기 각군읍지와 『읍지대장』」, 『규장각』 59, 2021d.
-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1917.

Abstract

## Eupjis Compiled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Eupji Integration Work

Lee, Jae-doo

Most of Gwanchan-Eupji(official county gazetteer) were manuscripts, and there were not many copies left in the county except for those produced for reporting purposes. In the Gyeongsan area, about 10 eupjis have remained in each of the three counties since 1758. It is difficult to sort out the best eupji by county, Since those of each county have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o it is necessary to complete a book by reorganizing the whole contents in the entire existing booklet by item and complete it into a book. This ‘eupji integration work’ will not only help us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commun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but also develop local cultural contents.

**keywords :**

eupji(county gazetteer), Gyeongsan area, eupji integration work, local cultural contents.